

직업의식 조사를 통해 본 국민들의 실직 불안

- 우리나라 국민의 일부(4.2%)만 의도하지 않은 실직의 발생이 두렵지 않다고 응답하고, 대다수(73.7%)는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.
- 고용지위별로 임금근로자(3.93점)가 실직 불안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으나, 미취업자(3.82점) 혹은 비임금 근로자(3.81점)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. 이는 고용주와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도 실직 불안에서 예외가 아님을 시사함.
- 직업을 노후 대책으로 보는 관점(1.48배~1.66배)이나 사회적인 지위(1.40배~1.39배)로 여기는 경우에는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큰 편임. 이에 비하여 직업을 사회적인 의무(0.75배~0.78배)로 여기거나, 조직 외부와 교류가 많은 경우(0.82배~0.84배)에 실직에 대한 불안이 낮아지고 있음.

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

| 우리나라는 실직 후 동일한 수준의 일자리로 재취업이 매우 어려워, 본의 아니게 직업을 잃게 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클 것으로 보임. 그러므로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, 적절한 정책 대안 도출의 필요성이 큼.

-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일을 통한 경제적인 보상으로 생계수단을 확보하고 사회적인 연계에 참여하는 것임. 그런데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실직은 수입의 상실로 개인과 가족의 생계유지 곤란은 물론 사회적인 연계와도 단절되는 충격을 줄 수 있음.
 -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'본의 아니게 실직하는 상황'이 된다면 얼마나 두려울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조사함.
 - 국민이 느끼고 있는 실직 불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고, 직업가치나 직무수행태도 등과 관련성을 검토하여 정책 대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높음.

| 분석 자료: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「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설문조사(2018)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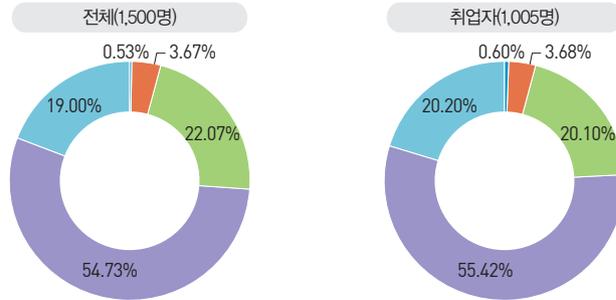
- 분석 대상: 지역과 인구비례를 감안하여 표본으로 추출된 15~64세의 우리나라 일반 국민 1,500명(취업자 1,005명 포함)
- 분석 방법
 -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이나 계층별 평균 비교
 - 개인별 실직 불안에 미치는 여러 요인을 동시에 살펴보기 위한 순서형 로짓 모형(ordered logit models) 분석

02 본의 아닌 실직이 주는 두려움

| 본의 아니게 직장에서 실직하는 상황에 대하여 73% 이상 대다수가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, 취업자의 경우 75% 이상이 두려워함.



- 전체 응답결과를 보면 실직이 두렵지 않음이 소수(4.2%)인데 비하여, 대다수(73.7%)의 국민들은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.
 - 이는 국민들이 느끼는 실직 불안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시사하므로 이를 완화시킬 적극적인 정책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됨.
- 취업자(75.6%)도 일자리를 잃는 것에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음.
 - 취업자의 실직 불안이 미취업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.



[그림 1] 본의 아닌 실직이 주는 두려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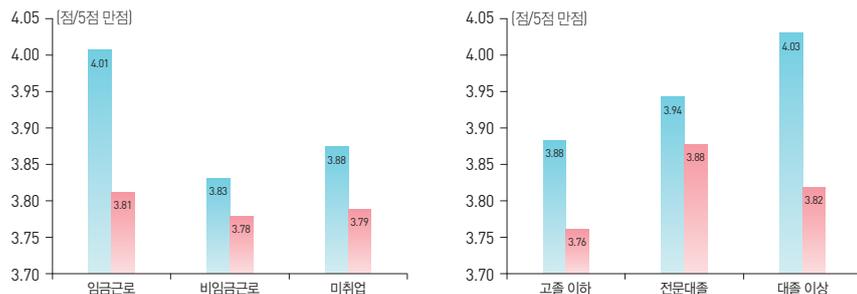
03 계층별 실직에 대한 두려움

남성의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높으며, 학력이 높을수록 실직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.

- 성별로 남성(3.96점)이 여성(3.80점)보다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데, 이는 남성이 가계를 책임지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($t=1.76, p=0.039$).
- 고용지위를 기준으로 보면, 임금근로자(3.93점)가 실직 불안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으나, 미취업자(3.82점) 혹은 비임금근로자(3.81점)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.
 - 남성 임금근로자(4.01점)의 실직 불안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으나, 그 이외 고용지위 · 성별집단의 경우 유사한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.
 - 이는 실직불안이 고용지위와 상관없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의미하며, 특히 고용주나 자영업자도 실직불안에서 예외가 아님을 시사함.
- 학력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실직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.
 - 대졸 이상(3.94점)이 실직 불안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으며, 고졸 이하(3.81점)와 차이(0.13점)가 유의미함 ($t=2.94, p=0.013$). 반면 전문대졸(3.91점)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비슷함($t=0.04, p=0.818$).
 - 성별 · 학력수준별로 대졸 남성과 고졸 여성의 격차(0.27점)가 매우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음($t=4.66, p=0.001$).



주 |
 1) 고용지위·성별 F(5, 1494) = 4.49(p= 0.0000) / 동일 고용 지위 성별 격차 $t=3.71(p=0.017)$, 0.38(p=1.00), 1.12(p=0.918)
 2) 학력수준·성별 F(5, 1494) = 4.84(p= 0.0002) / 동일 학력 성별 격차 $t=2.06(p=0.515)$, 0.74(p=0.99), 3.17(p=0.072)



[그림 2] 성별 고용지위 · 학력수준별 실직 불안

04 실직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

직업을 사회적인 봉사로 여기거나, 자신이 고객에게 친절하다거나, 조직 외부와 교류가 많은 경우에 실직에 대한 불안이 체계적으로 낮아지고 있음.

- '삶의 만족도'가 높을수록 실직 불안도 낮으며, 여성일 경우 실직 불안이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남.
 - 성별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다른 조건이 같다면 0.76배(전체)~0.79배(취업자) 실직 불안이 낮음. 이는 남성이 가계를 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.
 - '삶의 만족도'가 높을수록 실직에 대한 불안도 낮아지고 있음.
- 일의 가치에서 '노동을 의무'라고 여길수록, '돈이 아니라도 직업을 보유'해야 한다고 인식할수록 실직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.
 - '노동을 의무'로 여기는 경향이 높을수록 1.15배~1.24배 더 실직 불안이 높음.
 - '돈이 아니라도 직업을 보유'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을 경우 1.22배~1.18배 더 실직 불안이 높음.
- 직업에 대한 관점에서 직업을 '사회적 지위'나 '노후대책'으로 여기는 경우에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으나, '사회적인 의무'로 보는 경우에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.
 - 직업은 '사회적 지위'라는 견해가 높을수록 실직에 대한 불안이 1.39배~1.40배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.
 - 직업을 '노후 대책'으로 보는 관점에 동의할수록 실직에 대한 불안이 1.66배~1.48배 증가하고 있음.
 - 직업을 '사회적인 의무'로 보는 관점에 동의할수록, 실직에 대한 불안이 0.75배~0.78배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.

〈표 1〉 실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

구분	전체			취업자			
	β	SE	exp(β)	β	SE	exp(β)	
인적 속성과 만족	성별(남성=1, 여성=0)	-0.275***	0.1048	0.7598	-0.231*	0.1310	0.7940
	나이(15~64세)	0.005	0.0039	1.0048	0.010*	0.0060	1.0105
	학력(1=무학, 7=대학원)	0.100*	0.0547	1.1054	0.234***	0.0734	1.2641
	삶의 만족도(0~100)	-0.012***	0.0045	0.9881	-0.014**	0.0057	0.9859
일의 가치 (5)#	노동을 의무	0.141**	0.0637	1.1516	0.215***	0.0801	1.2395
	돈이 아니라도 직업을 보유	0.197***	0.0615	1.2181	0.167**	0.0753	1.1815
	여유가 있으면 취미생활 우선	-0.100*	0.0585	0.9049	-0.072	0.0711	0.9307
직업 관점 (4)#	사회봉사 직업에 종사함	-	-	-	-0.199***	0.0748	0.8193
	직업은 사회적 지위	0.332***	0.0789	1.3934	0.338***	0.0996	1.4016
	직업은 사회적 의무	-0.282***	0.0848	0.7542	-0.251**	0.1037	0.7781
	노후대책으로 직업	0.505***	0.0903	1.6570	0.392***	0.1113	1.4806
직무 수행 태도 (7)#	일처리가 신뢰할 만 함	0.245***	0.0701	1.2782	0.322***	0.0849	1.3805
	규정을 준수하며 일함	0.132*	0.0737	1.1408	0.166*	0.0900	1.1808
	업무 관련 대상자에게 친절	-0.199***	0.0753	0.8193	-0.227**	0.0910	0.7969
경력 관리 (5)#	회사보다 내 생각 우선	-0.175**	0.0724	0.8391	-0.269***	0.0894	0.7645
	회사 밖의 사람과 일하는 것으로 좋아함	-0.194***	0.0729	0.8241	-0.180**	0.0899	0.8356
	다른 회사나 기업에서 일할 생각 없음	0.321***	0.0720	1.3780	0.376***	0.0897	1.4570
n/ χ^2 /Pseudo R ²		1,500/178.31/0.0527			1,005/150.22/0.0664		

주 |
 1) *** p<.001, ** p<.01, * p<.05.
 2) 절편(전체): -2.620396, -0.493316, 1.711106, 4.436136
 3) 절편(취업자): -1.892199, 0.1456949, 2.255354, 5.073877
 # 응답 보기에 제시된 응답 수를 의미함.

- 직무수행태도에서 '자신의 일처리가 신뢰할 만하다'고 여길수록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반면, '고객에게 친절하다'고 응답할수록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.
 - '자신의 일처리가 신뢰할 만하다'는 견해가 높을수록 실직에 대한 불안이 1.28배~1.38배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.
 - 업무와 관련된 '고객에게 친절하다'고 응답할수록 실직에 대한 불안이 0.82배~0.80배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.
- 경력관리와 관련하여 '회사보다 본인의 가치관을 우선'하거나 '회사 밖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'는 경우에 실직 불안이 낮아지지만, '가능한 같은 조직에서 근무'하겠다는 응답이 늘어날수록 실직 불안이 높아짐.
 - 회사와 본인의 가치관이 충돌할 경우에 '회사보다 본인의 가치관을 우선'하겠다는 주장에 동의할수록 실직에 대한 불안이 0.84배~0.76배 감소함.
 - '회사 밖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'고 응답할수록 실직에 대한 불안이 0.82배~0.84배 감소하고 있음.
 - 이에 비하여 '가능한 같은 조직에서 근무'하고 이직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높을수록 실직에 대한 불안이 1.38배~1.46배 높아짐.

05 시사점

-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직장에서 실직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높으며, 특히 남성과 취업 상태인 사람이 더 민감함. 전통적으로 남성에게 가족 생계에 대한 책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나, 구체적인 원인은 추가로 규명할 필요가 있음.
 -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킬 대안으로 취업지원 등 고용안정서비스의 제고는 물론 실직기간 중에 생계를 지원하는 실업급여나 실업부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.
-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, 이는 대학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과 일자리 정착에 대한 접근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임.
 - 교육과정의 내용을 꾸준히 분석하고 재정비하여, 대학 교육이 진로 탄력성(career adaptability)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이 요구됨.
- 직업을 노후 대책으로 보는 관점이나 사회적 지위로 여기는 경우에는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큼. 이에 비하여 직업을 사회적 의무로 여기거나, 조직 외부와 교류가 많은 경우에 실직에 대한 불안이 상대적으로 더 낮음.
 - 직업의 보상 측면과 함께 사회적 기여 관점을 중시하고, 조직 외부와 보다 적극적인 교류가 가능한 근무 환경 시스템으로의 개선이 필요함.

박 천 수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)

박 화 춘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)